

흡기, 잠언, 전도서 결정 연구 개요

표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통하여 표현되시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모두 잃어버리는 손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그분을 얻게 하는 데 있다.

흡은 선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올곧으며 순전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흡을 아무것도 아닌 이로 감소시키시고,
그를 계속 생존하게 하시며, 그분 자신을 그 안에 분배하시고,
그를 하나님-사람이 되게 하시어,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들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들이 생명과 생명 공급과 그들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충만히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그 풍성을 누릴 때,
이 풍성은 그들을 교회로 조성되게 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천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욥기에 있는 위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위대한 답변

성경: 욥 1:1, 10:2하, 13, 엡 3:9, 욥 42:5-6

- I. 욥기의 마흔두 장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된 위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 욥 1:1, 10:2하, 12-13, 비교 11:12, 13:4.
- A. 욥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저와 겨루시시기를 알려 주십시오.”(욥 10:2하)라고 말하였고,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13절)라고 말하였다.
- B.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것은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었다 — 엡 3:9.
- II.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은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담긴 그분의 영원한 의도로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분배해 놓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시는 것이며, 그 결과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충만이자 하나님의 표현이 될 하나의 유기체 곧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 딤후 1:3-4, 엡 1:22-23, 3:9, 19, 창 1:26, 사 43:7, 롬 8:29, 요일 3:2.
- A.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얻으시며 그 결과 욥도 하나님을 더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벗겨내심과 소모시키심이었다.
- B. 비록 하나님께서 욥을 벗겨 내고 계셨지만, 그분은 결코 욥에게 진노하시거나 욥을 그분의 대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을 친밀한 친구로 여기셨다 — 욥 19:11, 비교 10:13.
- C. 하나님은 욥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후에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됨으로써, 또 다른 사람 곧 새 창조물인 새사람이 되어(갈 6:15)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것(고후 5:17)을 아셨다.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다.
- D.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었다.
1. 육십육 권으로 된 성경은 오직 한 가지에 대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 요 10:10하, 고전 15:45하, 롬 8:2, 10, 6, 11, 빌 1:19-21상, 고후 3:6.
 2.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것은 그를 윤리의 영역에서 이끌어 내시어 하나님을 얻는 영역 안으로 이끄심으로, 윤리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다른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고 얻는 것으로 전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에 달려 있다 — 시 27:8, 105:4, 빌 3:8, 마 25:3-4, 9, 잠 23:23, 계 3:18, 고후 3:18, 4:17, 뱀전 2:7, 단 5:27, 9:23, 10:11, 19.

3.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들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얻고, 그분께 동참하며,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점점 더 누림으로, 결국 그들의 누림이 가장 최고도에 도달하여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 마 5:3, 시 43:4, 73:25-26, 빌 3:8-9, 계 21:2.
4.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에 관해 욥기에 나오는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 되는, 신약 전체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III. 욥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아무것도 아닌 이가 되도록 감소시키되 계속 생존하게 함으로써(욥 2:6) 그분 자신을 욥 안으로 넣으실 시간을 얻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두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엡 3:16-19).

- A. 욥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하였으며(욥 6:30, 9:20, 27:5-6, 32:1), 자신이 이미 무언가가 되었다고 자만에 빠졌지만(13:3, 23:3-4, 31:6),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비교 계 3:16-18).
- B. 욥의 영광은 그의 온전함과 올곧음이었고, 그의 관은 그의 순전함이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머리에서 관을 빼앗아 가셨다(욥 19:9). 욥의 소망은 그의 순전함이라는 ‘나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무가 욥 안에서 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무, 곧 그의 소망을 뽑아 버리심으로(10절), 그를 하나님을 얻는 영역 안으로 이끄시려고 하셨다.
- C. 하나님은 욥 자신이 잘못된 영역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 영역은 자신을 완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을 지닌, 옛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영역이었다. 욥은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벗겨져야 할 방해물로 여기셨다. 그러한 것들이 벗겨져야 욥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요소와 본질을 받아들여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하는,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 고후 3:18, 뵤전 4:10, 엡 3:2.
- D.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스스로 온전하고 올곧았던 타고난 욥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로 새롭게 된 욥을 건축하시려는 것이었다. 성령의 징계는 새롭게 된 존재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허물어뜨린다 — 고후 4:16-18, 롬 8:28-29.
- E. 우리 안에서의 그 영의 일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존재를 조성하는 것인데 반해, 우리 밖에서의 그 영의 일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각 방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운행하시는 영께 협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 빌 4:12, 엡 3:1, 4:1, 6:20, 고전 7:24.
- F.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이 우주 안에서 고난의 주된 목적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해 넣어서 사람이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하나님을 얻게 하는 것이다 — 고후 1:8-9, 4:16.
 1.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사람 안으로 일해 넣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으로 일해 넣어진다 — 고후 4:16.

2. 하나님은 그분의 외적인 행동들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알려 주시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해 넣으시려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신다 — 갈 4:19, 고후 4:7-12, 살전 3:3, 요 16:33.
3. 부활 안에 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 롬 8:28-29, 히 12:10, 비교 렘 48:11.
4.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께 최상의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 비교 시 102편 및 제목.

IV.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기 위해 사람을 신화(神化)하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려는 움직임은 전적으로 연합된 영, 곧 우리 사람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신 신성한 영 안에 있다 — 고전 6:17, 계 1:10, 4:2, 17:3, 21:10, 비교 욥 12:10, 32:8.

- A.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그 영과 함께,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주의하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 모든 일을 함으로써 신성한 영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 갈 5:16, 25, 빌 3:3, 롬 8:4, 6, 고후 2:12-14, 말 2:15-16.
- B.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떠나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 영을 떠나서는 어떤 상황도 대하지 말고 어떤 필요도 채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신성한 영을 접촉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일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 숙 4:6, 고후 3:3, 6, 롬 1:9, 7:6, 빌 3:3.
- C.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 눅 1:37-38상, 고후 4:13, 롬 8:2.
- D. 우리가 그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죽음, 부활, 승천과 그 영의 부어지심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새사람,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빌 1:19, 욥 2:28-32, 행 2:16-21, 엡 1:22-23, 2:15, 4:4, 23-24, 요 15:1-11, 계 3:12, 19:7-9, 21:2, 10.

V.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보았고, 개인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얻었으며, 자신을 혐오했다 — 욥 38:1-3, 42:1-6.

- A.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다 — 고후 2:10, 딤후 4:22.
 1.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변화되며,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 고후 3:16, 18, 마 5:8, 계 22:4.

2. 하나님을 더 보고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부인하고 더 혐오하게 된다 — 욥 42:5-6, 사 6:5, 눅 14:26.

B.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 엡 1:17-18, 3:16-17, 고전 2:9-16, 고후 4:13, 딤후 4:7, 딤후 1:6-7.

1.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더 볼수록, 우리는 그분의 모든 성분을 우리의 내적 공급으로서 우리 존재 안에 더 받아들여지게 된다 — 고후 3:16-18.

2.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곧 우리의 충족의 비결로 삼아야 한다 — 고후 2:13, 7:5-6, 말 2:15-16, 시 91:1, 빌 4:11-13, 시 90:1-12, 31:20, 사 32:2.

C.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 고후 3:16, 18, 마 5:8, 13:18-23.

1.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 받고 통제받음으로써,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 엡 4:23, 신 17:18-20, 빌 2:2, 5.

2.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불타면서,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집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신 그분으로 채워지게 해야 한다 — 빌 1:8, 고후 5:14, 딤후 1:6-7, 요 2:17, 막 12:30.

3. 우리는 반드시 고난들을 통해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시켜야 하며(빌 2:13, 비교 아 4:1, 4, 7:4상, 5),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극히 귀하고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는 피로 말미암아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유지해야 한다(행 24:16, 딤후 3:9, 히 9:14, 10:22).

VI.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통하여 표현되시기 위하여(창 1:26),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모두 잃어버리는 손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그분을 얻게 하는 데 있다(빌 3:7-8).